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다”

광주FC 캡틴 안영규 “1부 승격 발판 마련”
3년 만에 광주 복귀 “집으로 돌아온 느낌”
울시즌 30경기 이상 뛰며 팀 최소실점 주력

“개막전에 맞춰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광주FC 주장 안영규(33)의 2022시즌 개막 전 각오가 비장하다.

광주 U-18 급호고 출신 안영규는 2012년 수원 삼성에서 데뷔했고 일본 2부 기라반츠 기타큐슈(임대), 대전 시티즌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뛰었다. 2018시즌 당시 광주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팀을 이끌기도 했다. 군 복무 후에는 성남FC에서 활약했다.

올 시즌 그는 옛 스승 이정호 감독의 부름을 받아 광주로 돌아왔다. 2019년 성남 이적 이후

3년 만에 친정팀 복귀, 그리고 주장 완장까지 졌다. 통산 195경기를 뒀던 베테랑 수비수에 대한 신뢰였다.

지난 25일 벨교스포츠펀터에서 만난 안영규는 “4년 전 주장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어렸기 때문에 ‘의욕적으로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경험도 쌓였기 때문에 목표만 바라보고 팀원들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고 말했다.

안영규는 “편안한 마음이 크다. 밖에 나가다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인 것 같다”며 “일단 올 시즌을 2부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곧바로 1부로 올라가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이러 “부상 없이 올 시즌 경기에 많이 뛰고 싶다. 리그경기만 40경기 있는데 적어도 30경기는 출전하고 싶다”면서 “팀이 최소실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점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안영규는 “우선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가 먼저 잘해야 후배들이나 동료 선수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며 “승격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잘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배려로 다져진 ‘끈끈한 팀’도 강조했다. “선수들만 30명이 넘어 나만 혼자서 팀을 이끌 수 없다. (이)순민이나 (김)중우 부주장 선수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세 명 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영규는 팀 내 분위기에 대해 “아직까지는 초반이기도 하고 처음 겪는 올 시즌 (선수들끼리)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독님

이 장난을 많이 치는 스타일인데 그 장난 속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것을 선수들이 잘 파악해야 한다. 넌지시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의미를 잘 캐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규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1부 리그)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멤버로도 충분히 (승격이) 가능하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느껴 경쟁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계훈련은 선수들끼리 맞춰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한 시즌에서 우리끼리 잘 똘똘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규는 “3년 만에 광주로 돌아와서 기쁘고 팬분들도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비록 광주 2부에서 시작하지만 시즌이 끝났을 때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년엔 1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안영규

LPGA 데뷔전 최해진 “숫게임 보완...대회 기다려져”



최해진

게인브리지 출전...강한 자신감
박인비·이정은·전인지도 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공식 데뷔를 앞둔 최해진(23)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해진은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리톤의 보카 리오 골프클럽(파72·6,701야드)에서 열리는 게인브리지 LPGA(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달 LPGA 투어 퀴리파임(Q) 시리즈를 공동 8위로 통과한 최해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LPGA 투어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공식적으로는 LPGA 투어 신인에 해당하지만 최해진은 KLPGA 투어에서 이미 10차례 우승한 전적이 있고, 아마추어 시절 초청 선수로 출전한 2017년 US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실력은 충분히 검증된 선수다.

2주 전 미국으로 떠나 전지훈련을 하며 LPGA 투어 데뷔를 준비해 온 최해진은 이번 대회를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한다.

최해진은 “열흘 정도 팜스프링에서 날씨와 잔디에 적응하면서 겨울에 한국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스윙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했다”며 “루키 시즌에 맞이하는 첫 대회라

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기대도 많이 된다”고 말했다.

KLPGA 투어에서 뒀던 4년 동안 한 번도 그린 적중률 1위를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언 샷 실력을 자랑하는 최해진이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기술을 보완하며 꼼꼼하게 LPGA 투어 공식 데뷔전을 준비했다.

최해진은 “숫게임이 조금 불안해서 항상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에 레슨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꼈다. 덕분에 이번 대회도 많이 기다려진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해진은 지난달 장장 8일 동안 치러진 Q 시리즈를 통해 낯선 LPGA 투어 분위기에 적응을 마친 상태다.

최해진은 “최근에 경기를 해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Q 시리즈에서 입었던 발목 부상도 말끔히 치료돼 완벽한 컨디션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최해진은 “타박상 정도였고 그 당시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다 나아져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게인브리지 LPGA에는 최해진 외에 박인비(34)와 이정은(26), 전인지(28), 김아림(27), 안나린(26) 등 한국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연합뉴스



질주하는 김민선 27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2022 전국남녀 중별종합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500m 세퍼레이트에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4월 1일 MLB 개막 가정하고 훈련

“몸 상태 지난해보다 좋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은 4월 1일 실전 등판이 가능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류현진의 전담 트레이너로 일하는 장세홍 트레이닝 코치는 26일 “류현진의 몸 상태는 지난해보다 좋다. 2월에는 볼펜 피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선수 노조와의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CBA)을 개정하지 못하고 직장폐쇄를 택한 터라, ‘토론토 구단 소속’인 장세홍 코치도 류현진의 훈련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한다.

장 코치는 훈련 일정을 관리하고, 몸 상태를 점검하는 수준으로만 류현진을 돕고 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류현진은 차분하게 예열 중이다.

일단 ‘4월 1일’을 2022년 개막일로 가정하고, 훈련 일정을 짰다.

메이저리그 노사가 2월 중에 CBA 개정에 합의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은 스프링캠프 기간을 줄이고 ‘4월 1일 개막’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장 코치는 “지금도 볼

펜피칭이 가능한 상태다. 직장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서두르지 않을 뿐”이라며 “어깨, 팔꿈치 상태는 정말 좋다. 미국 현지 상황을 보며 조절을 하겠지만, 당분간 류현진 선수는 4월 1일 등판을 기준으로 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9일 입국해 짧은 휴식을 취한 류현진은 김광수 전 한화 투수가 운영하는 54K 스포츠에서 훈련하며 체력을 키웠다.

1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제주도 강창하야구장에서 장민재, 김기탁(이상 한화 이글스), 이태양(SSG 랜더스)과 실의 훈련을 했다.

류현진은 제주 훈련 기간에 룬토스와 평지에서 18.44m(투구관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 투구 등을 했다.

작년 제주 캠프(2021년 1월 7~21일)에서는 볼펜피칭을 한 차례 했다.

올해도 제주 캠프 기간에 볼펜피칭을 한 차례 할 계획이었지만, 직장폐쇄가 길어질 수 있어서 볼펜피칭 시작 시점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

류현진은 2월 3일부터 경남 거제 하청스포츠타운에서 개인 훈련을 한다. 류현진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친정팀’ 한화 이글스가 스프링캠프를 치르는 장소다.

류현진은 거제에서는 볼펜피칭 등 투구 훈련 시간도 늘려갈 전망이다.

이번 거제 훈련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장 코치는 “류현진은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상태”라며

“경험이 많은 선수여서 메이저리그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류현진은 14승 10패 평균자책점 4.37을 올렸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절이던 2013~2014년, 2019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이자 토론토에서는 처음으로 시즌 최다승인 14승을 거두고 아메리칸리그 다승 공동 2위로 2021년을 마감했지만, 다른 지표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입성 후 최다인 10패를 당했고, 평균자책점도 어깨 부상으로 한 경기만 던진 2015년(11.57)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빴다.

/연합뉴스

황희찬 225억에 울버햄프턴 완전 이적

계약기간 2026년까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26)이 임대로 뛰면서 성공적인 반시즌을 보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로 완전 이적했다.

울버햄프턴은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을 완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울버햄프턴과 황희찬의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다.

지난해 8월 독일 RB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프턴으로 임대된 뒤 5개월 만의 완전 이적이다. 당시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을 임대 영입하며 계약서에 차후 완전 영입을 가능케 하는 옵션을 달았다.

울버햄프턴은 이적료를 밝히지 않았으나, 1,670만 유로(약 225억8,000만원)를 라이프치히에 지급한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황희찬은 울버햄프턴으로 임대 이적한 뒤 프리미어리그(EPL) 첫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뛰어난 득점력을 뽐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왓퍼드와의 EPL 2라운드에서 후반 18분 교체 투입된 뒤 20분 만에 데뷔골을 넣어 울버햄프턴의 2-0 승리에 썩거리를 박았다.

금방 주전으로 도약한 황희찬은 7라운드 뉴캐슬전에서는 멀티골을 폭발했고, 9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다.

황희찬은 구단 자체 ‘9월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황희찬

황희찬은 지난달 중순 브라이턴전에서 허벅지를 다쳐 현재 전열에서 이탈해 있지만, 전반기 활약상은 울버햄프턴이 그의 영입을 ‘성공적’이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했다.

황희찬을 영입한 이유에 대한 구단의 설명도 다르지 않았다.

울버햄프턴 홈페이지는 황희찬의 시즌 초 득점 행진 등 팀에서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은 물론 한국 대표팀에서의 활약상도 언급했다.

울버햄프턴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황희찬의 완전 영입을 알리면서 ‘긴 여정을 함께합시다’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렸다.

황희찬은 구단을 통해 “2026년까지 울버햄프턴에 남게 돼 매우 기쁘다. 정말 좋은 감독님, 선수들과 함께 땀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류현진